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478장(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 교독문	98(아버이주일)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579장(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같이
예배기도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양대
금주의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골로새서 4:7-8 이영란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진실한 교제 ”
기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220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봉헌	(말은이)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오늘은 야외예배 및 친교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마태12:38-45 말씀 / 최세열목사 “불완전한 회개의 비유”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출애굽기강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8시 개인기도, 합성기도 중보기도 / 소예배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다음주 기도	1부 김애경집사	
	헌금위원	5월 박상귀 정선례 박현순 정재영	다음주 성경봉독	1부	말은이
		6월 김기희 나금옥 허웅 김귀례		2부	이문순권사
	식당봉사	금주 각구역	다음주 마르다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기희권사
헌신찬양	금주	없음	다음주	에스더회	

진실한 교제 / 골로새서 4:7-8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기쁨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고백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를 향해 40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이들과 좋은 교제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5절).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 피차에 좋은 교제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고후13:11,12).
 좋은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사역을 ‘나 혼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 다. 바울은 같이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 하나 언급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일일이 그 이름과 수고함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 혼자 갇혀서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돕고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제일이다, 나 혼자 다 한다, 나 혼자 고생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사를 고집하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불가능해 집니 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헌신적인 동역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로서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는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뚜렷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특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과거를 언급하기보다 현재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한때 선교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를 버리고 돌아간 마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갇힌 마가’라고 소개합니다. 유스도는 할례파로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과거의 흠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두기고와 누가에서 보듯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킵보를 대하는 태도처럼 책망할 때는 정중하게 합니다(4:17)

- 구체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힘써 서로 알아야 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교인들을 칭찬 합니다(1:3-6).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하려고 애씁니다. 특히 본문에는 문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옵니다. 이는 곧 서로 살피라는 것 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 하라는 말입니다. 맑고 깨끗한 교제인 ‘지란지교(芝蘭之交)’를 하라고 말합 니다.
 사도행전 1: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보여줍 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 도하기를 힘쓰니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서로의 장점을 보며, 칭찬하며, 서로의 사정을 살 피고, 위로하고 문안하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5:교회)
 5/8 제3과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고린도전서 16장 15-20절)

말씀살피기
 고린도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습니 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교회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를 보일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묵상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교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살피봅시다.

첫째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15,16)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섬긴 스테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이란 자기 집을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또는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 지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성품에 달려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고한 자들을 알아주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17,18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교회를 위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스테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교는 부족한 헌금을 채우는 헌신으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때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의 여러 봉사에 대해 기뻐하고, 이해하고, 사랑 해주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봉사나 물질을 드림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격려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셋째,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19,20).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제는 성령 안에서 서로 마음이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는 서로 아픔과 슬픔,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집니다. 참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때, 이 교제는 자기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 교회들 간의 교제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교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 말씀적용**
- 교회 안에 자신이 존경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칭찬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며 위로해 드립니다.
3. 다음 주일은 평신도참여예배로서 에스더회가 함께 합니다. 에스더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야외예배 및 친교모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모임을 준비해 주신 친교부와 바울회에 감사드립니다.
4.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주 토요일(14일) 함께 하실 분들은 8시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노회소식 :
 - 경기노회 제179회 목사임직식이 12일(목) 오전11시에 분당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질그릇 안의 최상의 것 -랍비 요수이

트라안 황제 시대에 살았던 랍비 요수이는 아는 바와 같이 굉장히 못생겼지만 현명했다. 그는 얼굴이 검어 대장장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거리에서 아이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곤 했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현명하여, 친구로서 황제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어느 날 황제를 방문했을 때 황제의 딸이 그가 못생긴 것에 대해 비웃으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 현명함이 그 못생긴 머리 속에 담겨 있어야 하나요?" 하고 말했다. 그는 "공주님, 아버지께서는 술을 어디에 두고 잡수시는지요?" 하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질그릇이요." 공주는 대답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술을 질그릇에 담으니, 황제님의 것은 더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권했다.
 공주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모든 술을 빨리 금 그릇, 은그릇에 담도록 했다. 그런데 마실 때쯤 그 술이 쉬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그에게 왜 자기에게 그런 권고를 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공주님은 한 가지를 배우신 것입니다. 술은 보통 용기에 넣어야 가장 좋습니다. 지해도 마찬가지지요." 라고 말했다. 그 후로 공주는 그의 못생긴 외모에 대해 다시는 비웃지 않게 되었다.

지란지교(芝蘭之交)

맑고 깨끗한 교제를 지란지교(芝蘭之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초와 난초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든 듯하여 오래 되어서는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나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 되어서는 그 악취를 맡지 못하더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即與之化矣 與不善人居 與入鮑魚之肆 久而不聞其臭 亦與之化矣)

교회는 지란지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린내 나는 교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이광주 홍혜미 강은순 김대봉 박세일 김기수 신혜영 심복례 최승만 선우명환 장영분 정숙자 김한순 박홍만 정정희 김선영 윤승호 최경선 함경숙 이문순 박상귀 공영순 김선주 원혜경 안복선 김애경 김영란B
- 감사헌금 : 박지아 한상호 이준춘 심문자 박광섭 주양호 강항구 류종란 박홍만 정정희
- 건축헌금 :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박세일 강지선 김태현 김대봉 강은순 함경숙 박정일 박지영 선우명환 장영분
- 비전씨앗 : 전광현 전원화 김서이 최영진 강항구 류종란 김하윤 배영인 나인원 나인애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양석임	4	17,000	150	7	강은순	이영선	이영선	5	15,000	120
2	정정희	신혜영	김영숙	5	14,000	168	8	김순남	오복실	차소라	3	20,000	40
3	이준호	함경숙	이석영	3	15,000	200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4	16,000	100
4	김기희	김경희	김정민	5	22,000	50	10	장영분	노순영	김영란	3	15,000	
5	이문순	원혜경	윤종원	3	20,000		계				37	169,000	878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3	15,000	50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전도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19호 2016.5.8.

부활절 일곱째 주일 / 아버지주일

온 세상을 지으신 생명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켜 주시어,
 찬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 아니었는지,
 보혈의 은총을 값없이 여기며
 제멋대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며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지께 공경하며
 감사드리는 주님의 가정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머무르는 가정마다 구원과 생명이 가득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연로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과 젊은이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교회행사 안내

1. 어린이 주일 - 5월 1일
2. 아버지주일 - 5월 8일
3. 평신도참여예배 - 5월15일 / 에스더회
4. 전교인야외예배 및 친교모임 - 5월 8일 / 국토지리원
5. 해든솔선교활동 - 5월 14일 / 구제사역팀주관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